

그릇된 해석 확인사살!

- 읽을 말씀 단 9:27, 마 24:29-31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70이레 예언이 초림을 의미한다는 로이드 존즈의 주장이 틀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해석의 절대적인 신뢰성확보를 위해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다니엘 70이레 예언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실마리와 발판이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 이중예언이며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이중예언이라는 것은 이를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100%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재림이 아니라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 재림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29-31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답을 프랑스의 해석에서 찾습니다. 29-31절을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 명백히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34)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함락으로 실현된 신적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29)**”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사 13:10)과 에돔을 비롯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것(사 34:4)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나라들과 제국들의 몰락을 묘사하는데도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면 이스라엘과 성전파괴를 묘사하는 데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에 …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30)**”는 다니엘 7장 13-14절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그 문맥에 비추어 ‘인자의 오심’은 인자가 땅으로 오는 것보다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그 결과 인자의 권위와 왕권이 온 세상에서 인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이를 예언한 인자의 권위가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인지되는 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성전파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31)”의 구약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여드는 자들은 ‘그의 선택받은 자들’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전 파괴를 통해 인자의 심판자로서의 권위가 확립됨으로써,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은다’ 는 개념이 한 장소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초청하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양용의 교수님도 이 해석을 지지하면서 “34절은 이 모든 일들(29-31절에서 예언된 일들이 일어나는 시한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으로 명백히 해준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모든 일(이 일이 다)**”안에 재림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일이 다(34)**”는 문맥에 의하면 “**이 모든 일(33)**” 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33)**”라고 했으므로 “이 모든 일” 안에는 재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이 해석이 옳지 않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우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14)고 했는데, 성전 파괴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또, 29절의 “**환난 후**”에 나오는 환난은 “**큰 환난**” (21-22)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29) 일은 환난 자체가 아니며 환난 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환난의 예표인 성전 파괴에 대한 묵시적인 표현일 수 없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30)**” 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는 것은 성경과 분명히 다릅니다. 족속은 민족을 뜻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31절에서 주님은 증인들이 아닌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복음전파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복음전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마 13:39)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세상 끝에 일어나는 추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알곡을 천국에 데려가는 휴거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스도 제자들의 질문이 ‘성전 파괴’ 와 ‘재림과 세상 끝’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마 24:3), 35절까지는 전자에 대한 답변이고, 36절부터는 후자에 대한 답변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 대한 표현들이 36절 전에도 나타나고, “주의 임하심” 에 대한 표현은 전방위적으로 두루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TVP성경난제주석」의 내용을 보

면, 마태복음 24장의 병행장이 마가복음 13장인데 마가는 마가복음을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5년 전에 썼으므로 성전 파괴와 재림은 둘 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으므로 예루살렘 함락과 예수님의 재림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제자들의 질문을 다듬어 별개의 두 사건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1)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2)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3). 이 후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 질문에 대해 (1)성전파괴에 대해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34) (2)재림 및 “세상 끝” 과 관련해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36).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면서 제자들의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두 대답이 그럴듯하긴 하나 문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함락과 대환난은 동시적(동일한 말)으로 예언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15)**은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한 것으로 우선 예루살렘 함락을 가리키는데, 27절이 이중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4절(배교, 우상숭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예언입니다. 이것은 그 뒤 구절(16-21)을 통해서도 100% 로 확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 과 ‘대환난’ 을 이중으로 예언하셨으나 ‘예루살렘 함락’ 과 ‘재림’ 을 이중으로 예언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중예언이지만 마지막에는 재림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두 질문에 차례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이 이중예언이고, 이중예언 중 후자를 강조하거나 대환난 뒤에 바로 있을 재림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신 후 두 질문에 대해 차례로 대답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말씀(마 24장과 그 병행장들)의 일부는 AD 70년에 일어난 사건들에 국한된 사실적인 설명인 반면에, 다른 말씀들은 심판의 날과 시대의 종말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입니다.”** 라는 견해를 근거로 70이레 예언이 마태

복음과 달리 예루살렘 함락까지만 예언한 것으로 이중예언임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공정한 마음으로 자세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마태복음과 달리 병행장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단순히 성전 파괴의 시점에 대한 것이었지만(막 13:1-4, 눅 21:5-7) 그럼에도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두 사건을 각각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중예언을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24장 첫머리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들은 주후 70년뿐 아니라 종말의 징조로 더 잘 어울리고 특히 14절이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중예언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어떤 분들은 무과화나무 비유 직전에 나오는 말들은 종말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중예언이 아니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예언의 앞의 것은 그림자(모형)이고 뒤의 것은 몸통(실체)이기 때문에, 뒤에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예루살렘성의 함락과 대환난만 이중예언이고 예루살렘성 함락과 재림은 이중예언이 아닌데, 대환난 바로 뒤에 재림이므로 이어서 재림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아도 마태복음 24장 전반부는 이중예언이 맞습니다. 넷째, 만약 로이드 존스의 주장대로라면 성전파괴에 대해서는 34절로 말씀하시고, 대환난과 재림부분에서는 36절로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에 대한 무과화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몰아서 하셨기 때문에 문맥이 뒤죽박죽이 되어 해석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이중예언으로 보고 뒤에 일어날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대환난 뒤에 일어날 재림을 더 설명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이중예언이며, 다니엘 9장 27절 역시 이중예언임이 확실합니다.

● 나눔과 적용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재림을 이중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식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배도의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